

# 식민지기 조선간이생명보험 '가미시바이(紙芝居)' 연구\*

권희주\*\* · 성윤아\*\*\*

## 목차

- I. 들어가며
- II. 조선간이생명보험의 '선전'
- III. 체신국 '가미시바이'의 실제
  - 1. 보험가입자와의 비가입자의 대비
  - 2. 건강상담소의 혜택과 조선청년의 성장서사
- IV. 결론

## I. 들어가며

본고는 식민지기 조선간이생명보험의 '선전'과 체신국 제작 '가미시바이(紙芝居)'의 작품 분석을 통해 일제의 보험 모집 전략을 살피는데 그 목

---

\* 이 논문은 건국대학교 KU연구전임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행된 과제임.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1024072)

\*\* 건국대 KU중국연구원 조교수(주저자)

\*\*\* 상명대 한일문화콘텐츠학과 부교수(교신저자)

적이 있다.

‘가미시바이’는 하나의 이야기를 주요 장면마다 그림으로 나타내어 그것을 순차적으로 제시하며 대사와 연기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미디어로,<sup>1)</sup> 영화처럼 별도의 영상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시연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가미시바이’는 1923년 간토(關東)대지진 이후 엿장수들이 엿을 팔기 위해 발생한 거리 예능이며, 가두(街頭) 가미시바이부터 교육 가미시바이, 국책(國策) 가미시바이 등 발전 단계와 종류에 따라 세분화된 명칭이 있다. 식민지조선에서는 ‘가미시바이’, 종이연극, 종이광대, 지(紙)연극 등으로 불리며 주로 계몽과 사상 교육에 이용되었다.<sup>2)</sup>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던 일제는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자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 증징 방안과 함께 영세층에 대한 자금흡수를 모색하게 되었다.<sup>3)</sup> 1925년 재무국장 구사마 히데오(草間秀男)가 총독부 정례국부장회의에서 조선재정상 저금장려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를 계기로 우라하라(浦原) 체신국장이 간이생명보험실시의 계획을 수립, 그해 9월 ‘간이생명보험사업 실시안’이 작성되었다. 뒤이어 1926년 1월 체신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간이생명보험사업 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6월 조선에서 단독으로 경영하는 간이생명보험에 관한 기초개설, 예산안 및 그 외 법안을 작성하여 대장성(大藏省)에 제안했다. 그러나 대장성 대신은 ‘내지’의 간이생명보험의 연장선이 아닌 조선에서 단독으로 경영하는 것이 보험의 본질이라며 조선의 사회경제상 곤란하다고 반대하게 된다. 다시 조선 측에서 관계관청에 절충하여 우여곡절 끝에 1928년 2월 14일 제56 제국의회에 조선간

1) 加太こうじ, 『紙芝居昭和史』, 岩波現代文庫, 2004 참조.

2) 권희주, 「식민지조선의 ‘종이연극’-시각미디어를 이용한 정보선전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105(한국일본학회, 2015.11.) 참조.

3) 양홍준, 「日帝下 朝鮮簡易生命保險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참조.

이생명보험특별회계법안, 그 예산안 및 그 외 법률안을 제정, 만장일치로 양원을 통과하였다.<sup>4)</sup> 1929년 9월 조선총독부령 제78호 <조선간이생명보험규칙>이 제정되었고 10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sup>5)</sup>

조선간이생명보험에 대한 선행연구는 일친한 상황으로 양홍준의 연구는 선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조선간이생명보험의 실시배경과 입안 과정, 내용, 모집, 적립금의 운용 양상을 면밀히 살피어 조선간이생명보험은 일제 재정의 자금 조달을 위한 파이프였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sup>6)</sup>

또 후쿠이 유즈루(福井讓)는 조선간이생명보험이 보험제도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근검저축', '민력배양'을 확립하여 조선지배체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1930년대 이후의 소위 농촌진흥운동과 공통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sup>7)</sup>

그리고 최근 정일영은 자본주의 체제의 이윤창출 시기와 군국주의 체제에서의 동원 시기를 구분하여, 생명보험사들이 '자본주의적 포장지'로서 상호부조와 공공성을 이용했으며 전시체제하에서 동원의 수단으로 조선간이생명보험을 이용했음을 명확히 밝혔다.<sup>8)</sup>

보험은 보험가입자 모집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이를 위한 '선전'은 보험 사업에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보고는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조선간이생명보험의 '선전' 양상과 조선총독부 체신국에서 제작한 '가미시바이'의 실제 작품을 분석한다. 조선간이생명보험의 법안 제

---

4) 朝鮮總督府遞信局, 『朝鮮遞信事業沿革史』, 1938, 336쪽 참조.

5) 「朝鮮簡保實施 十月一日부터」, 『조선일보』, 1929.09.12.

6) 양홍준, 앞의 논문.

7) 福井讓, 「朝鮮總督府の遞信政策—朝鮮簡易生命保險制度の導入と遞信局」, 『日本の朝鮮・台湾支配と植民地官僚』國際シンポジウム報告書 第30集, 人間文化研究機構國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2008.

8) 정일영, 「일제 식민지기 조선간이생명보험을 통해 본 '공공'의 기만성」, 『역사학연구』 75 (호남사학회, 2019) 참조.

정과 모집실적, 적립금 운용 등은 다소간 연구가 진행되어 거시적인 관점에서 의 파악은 가능해졌다. 다만, 실제 보험가입은 각지에 있는 직원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선 민중에게 어떠한 메시지가 전달되어 보험 가입을 유도했는지, 민중의 어떠한 심리에 접근했는지, 그 전략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은 연구 과제를 남기고 있다. 이 글은 조선간이생명보험의 ‘선전물’, 그 중에서도 ‘가미시바이’가 대중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동원하기 위해 조선민중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밝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 Ⅱ. 조선간이생명보험의 ‘선전’

조선총독부 체신국에서는 조선간이생명보험을 “조선 일반민중의 경제적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아울러 민력(民力)배양, 근검저축의 미풍을 함양하기 위해 정부가 경영하는 비영리적인 소액생명보험”이라고 정의한다.<sup>9)</sup>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오로지 조선 민중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배려하는 복지제도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는 보험 사업은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일영의 지적처럼 “극단적일 정도로 비상업성과 공공성을 강조한 것은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상품으로서의 매력을 높”<sup>10)</sup>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 후쿠이 유즈루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선에서의 순조로운 보험계약실적은 체신국이 술회한 ‘선전’의 영향이라는 것은 분명하다.<sup>11)</sup>

조선간이생명보험은 가입모집 ‘선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었는

---

9) 朝鮮總督府遞信局, 앞의 책, 337쪽.

10) 정일영, 앞의 논문, 188쪽.

11) 福井謙, 앞의 논문, 246, 249쪽.

데 대표적으로는 포스터, 강연회, 좌담회, 표어, 영화, '가미시바이' 등을 들 수 있다. 포스터의 경우 간단한 글귀와 상징적인 시각이미지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명료하게 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체신국에서는 일찍이 포스터를 도입하여 전국에 배부하였다.

<그림 1><sup>12)</sup>에는 “보험은 인생의 등불”이라는 표어 아래 조선의 여인이 보험증서를 손에 들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에서 소외되고 있는 여인을 모델로 내세움으로서 보험이 불안한 현재를 대비하고 미래의 안위에 도움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으로 파악된다. 또,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서 여성을 약자의 위치에 공고히 한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 포스터는 2만장이 제작되어 전 조선의 각 우편국, 우편소에 배부되어 대대적으로 선전에 이용되었다.



<그림 1> 조선간이생명보험 포스터

<그림 2><sup>13)</sup>의 포스터를 살펴보다라도 건장한 남성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이나 홀로 있는 갓난아기, 그리고 작은 새와 같은 힘없고 어린 존재를 모델로 제시한다. 다만 조선과 일본을 아우르는 태양, 한줄기의 빛, 일장기, 촛불을 보호하는 거대한 손을 통해 포스터 이면에 강인한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는 보험이 존재감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또 새싹에 물을 주고 있는 여인의 뒤에 사과가 달린 나무를 그려 지금 씨앗을 뿌려두면 미래에 과실을 거둘 수 있다는 미래 중심적인 관점도 제시한다. 표어를 살펴보

12) 「簡易生命保險宣傳, 朝鮮簡易生命保險」, 『朝鮮新聞』, 1931.04.18.

13) 朝鮮總督府遞信局, 앞의 책, 341쪽.



〈그림 2〉 조선간이생명보험포스터

면 ‘안심과 행복은 보험에서’, ‘보험은 일가의 빛’, ‘보험은 광명으로의 제1보’와 같이 안정된 생활이라는 보호망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임을 피력하며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조선간이생명보험 선전영화도 보험 사업시작 6개월 후인 1930년 5월 영화각본의 현상모집부터 시작되었다. ‘내지’ 일본의 영화를 들여오는 것이 아닌 조선의 현지 실정에 맞는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공모한

것이다.

이번 체신국에서는 보험의 보급에 의하여 조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조선간이생명보험의 참된 취지를 조선인에게 철저히 주지하도록 하기 위해 조선을 본위로 한 선전용 활동사진영화를 제작할 계획으로, 조선인의 생활을 영사하는 간이생명보험 선전영화각본의 현상모집을 하게 되었으니 (중략) 기재하는 글은 일본어(和文)로 할 것.<sup>14)</sup>

이처럼 영화의 목적은 체신국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조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는 바꿔 말한다면 ‘현재 생활의 불안’이라는 전제조건이 감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참된 취지”를 철저히 주지시킨다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모내용에 그 취지가 무엇인지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조선인 본위”의 생활을 그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 또한 드러내고 있으나 영화각본의 조건은 보험가입의 구체적인 혜택보다는 각본의 분량과 일본어로의 작성을 지시하고 있어 대중적으로 조선인의 응모를 받기는 어려운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간이생명보험 선전영화는 1930년부터 평양분장국 관내 순회에서 큰 성황을 이루어 선전 지역이 경성분장국으로 확대되었다.<sup>15)</sup> 또, 전주,<sup>16)</sup> 부산,<sup>17)</sup> 선천,<sup>18)</sup> 강계, 안주, 평양, 정주, 신의주,<sup>19)</sup> 천안, 홍성, 조치원, 충주, 수원,<sup>20)</sup> 통영<sup>21)</sup> 등 전국 각지에서 대대적으로 상영되었다. 당선작인지

---

14) 「簡保宣傳映畫懸賞募集」, 『每日申報』, 1930.05.08.

15) 「簡易保險獎勵活動寫眞映畫」, 『朝鮮新聞』, 1930.10.10.

16) 「全州簡保宣傳」, 『釜山日報』, 1930.09.13.

17) 「釜山局の簡易保險宣傳映畫會」, 『朝鮮時報』, 1930.09.19.

18) 「簡易保險宣傳映畫」, 『釜山日報』, 1930.09.23.

19) 「簡易保險의 映畫宣傳 時日도 決定」, 『中外日報』, 1930.09.30.

20) 「簡易保險宣傳映畫」, 『每日申報』, 1930.10.10.



〈그림 3〉〈간이보험의 빛〉중 한 장면

확인되지 않았으나 전주와 통영에서 공개된 작품은 <마을에 부는 회오리(里吹く嵐)>이며, 통영에서는 <눈사태(雪崩)>도 추가로 상영되었다. 또 다른 작품으로는 <땅은 빛난다(土は輝く)>, <명암(明暗)>,<sup>22)</sup> <작은 새는 노래 부른다(小鳥は歌ふ)>, <밝아가는

는 하늘(明け行く空)>, <간이보험의 빛(簡易保健の光)>,<sup>23)</sup> <어머니의 미소(母の微笑)><sup>24)</sup> 등이 있다. 선전영화는 영화극장을 수월하게 방문할 수 없는 시기에 “서 있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sup>25)</sup> 조선민중의 이목을 모으는데는 성공하였다.<sup>26)</sup>

선전영화 <간이보험의 빛(簡易保險の光)>은 보험료 집금을 담당하는 이군(李君)이 장기를 두러 친구 집에 놀러갔다가 친구의 딸에게 보험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스토리이다. 또 보험 모집의 수속절차나 모범부락 표창에 관한 이야기도 소개된다.

이군은 간이보험의 효용에 대해 영화 속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점을 언급한다. 첫째, 만일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둘째 건강

21) 「簡保宣傳の映畫と講演」, 『釜山日報』, 1930.11.14.

22) 이 영화는 1936년 체신국에서 ‘가미시바이’로도 제작되었다.

23) <그림 3> 朝鮮遞信協會, 『朝鮮遞信』2月號, 1937, 66쪽.

24) 「簡易保險宣傳映畫」, 『동아일보』, 1934.10.04.

25) 「簡保宣傳映畫·大盛況を呈す」, 『釜山日報』, 1930.11.18.

26) 「簡保宣傳映畫, 元山で盛況」, 『朝鮮新聞』, 1930.09.21; 「簡保宣傳映畫定州で賑ふ」, 『朝鮮新聞』, 1930.10.03; 「簡保宣傳映畫松汀里で盛況」, 『朝鮮新聞』, 1931.10.28; 「簡保宣傳映畫 汶山에서 盛況」, 『毎日申報』, 1935.06.15. 등



〈그림 4〉 원산의 건강상담소



〈그림 5〉 순회건강상담

상담소의 설치, 순회 건강상담과 서면상담, 위생책자류의 제작배포, 라디오체조<sup>27)</sup> 장려와 같이 가입자의 건강보호에 힘쓴다는 점, 셋째로 적립금을 대부하여 사회공공적 사업 발달을 촉진한다는 점이다.<sup>28)</sup> 여기서 언급하는 적립금에 대해서는 체신국에서 “조선에서 개별적으로 간이생명보험 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은 “적립금을 조선 사회의 공공적 사업을 위해 융통하여 조선간이생명보험사업의 건실한 발달을 도모함과 동시에 조선의 개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sup>29)</sup> 즉, 조선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적립금이 ‘내지’ 일본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것이며 적립금을 조선의 공공사업과 개발을 위한 사회사업에 이용하겠다

27) 1925년 미국 메트로폴리탄생명보험회사가 아침 20분 정도의 유연체조에 어울리는 피아노 음악을 방송한 것에서 시작되어, 일본에서의 라디오체조는 체신성 간이보험국의 주도로 1928년에 쇼와천황의 즉위 기념으로 도쿄에서 방송된 후 전국으로 보급되었으며, 식민지 조선에서는 1931년 일본어 방송으로 시작되었다. 자세한 것은 權學俊, 「近代日本における身体の國民化と規律化」, 『立命館産業社會論集』53(4)(立命館大學産業社會學會, 2018); 황의룡·손환, 「일제 강점기의 라디오체조 보급과 사회적 영향」, 『체육사학회지14(3)』(한국체육사학회, 2009).

28) 朝鮮遞信協會, 『朝鮮遞信』2月號, 1937, 64쪽.

29) 朝鮮總督府遞信局, 『朝鮮遞信事業沿革史』, 1938, 341-342쪽 참조.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적립금의 대부사업종목은 취업소개소, 공설 욕장(浴場), 탁아소 등 모두 44가지 종목에 이른다.<sup>30)</sup> 1935년의 적립금운영은 다음의 표와 같다.<sup>31)</sup>

〈표 1〉1935년 조선간이생명보험 적립금 운용상황

적립금총액		15,573,903.550엔
사용내역	공공 대부	9,171,114.640엔
	국채 보유	1,010,160.000엔
	보험계약자 대부	293,613.470엔
	예금부 예금	5,063,016.440엔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적립금은 대부분 공공대부에 사용되거나 예금부, 국채보유로 적립되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다. 공공대부는 오롯이 보험가입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할 수 없으며 조선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조선간이생명보험의 적립금을 통해 지속적으로 충당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조선간이생명보험이 실시된 10월 1일은 시정 20주년 기념일로, 아마모토(山本) 체신국장은 담화를 통해 “조선에는 오랜 옛날부터 보험과 같은 상호부조의 정신을 기본으로 한 계라는 제도가 있었고 또 조상제사의 풍습도 왕성함으로 생명보험이 발달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였다.<sup>32)</sup> 또 『조선체신사업연혁사』에 ‘계’는 원시적인 보험과 같은 것이라 설명하여<sup>33)</sup> 조선사회에서 보험이 전통적으로 이미 존재했음을 강조함으로써 보험이라는 개념의 보편성을 획득해 가는데 주력했다는 사실을

30) 같은 책, 356-358쪽.

31) 같은 책, 359쪽.

32) 「簡易生命保險 一種의 國民保險이다 山本遞信局長談」, 『每日申報』, 1929.10.01.; 「簡易生命保險 發布實施에 際하여 山本遞信局長談」, 『동아일보』, 1929.10.01. 등

33) 朝鮮總督府遞信局, 앞의 책, 337쪽.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조선인 모두 이익'라는 조선민중의 '공동체의식'에 호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보험계약자대부는 적립금의 1.9%에도 못 미치는 아주 미약한 금액으로, 실제 보험계약자에게 적립금이 다수 사용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보험계약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영화에서의 소개와는 달리 대도시 거주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상담소 정도로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영화의 제작 일화에서는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선전영화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충실히 영화의 제목과 내용을 정했다고 언급한다. 특히 “단적으로 알기 쉽게 계약자 쪽의 이익을 강조”하고 지루하지 않게 표현한 것을 그 특징으로 들고 있다. 즉, 유희적인 측면을 활용하여 스토리를 기반으로 간단명료하게 조선민중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또 영화의 특성을 살려 카메라 이동이나 리얼리티를 살린 실사적인 화면을 위해 고심했음을 밝히고 있다. 아프리카에 가서 실제 촬영을 해도 오히려 화면으로 볼 때는 아프리카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예를 들며 화면을 통해 조선처럼 보이도록 세트 마련에 힘썼다는 것이다.<sup>34)</sup>

이처럼 조선총독부 체신국에서는 당시 조선인들에게 간이생명보험을 권장하기 위해서, 포스터나 강연회, 영화, 가미시바이 등을 선전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포스터의 경우 여자나 갓난아이, 어린 새 등 힘없고 어린 존재들을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표현함으로써 시각적 효과를 충분히 살리고 있다. 또한 영화의 경우에도 작풍 배경이나 주인공을 조선 그리고 조선인으로 설정하여 리얼리티를 최대한 부각시켜 조선인들의 보험가입을 보다 설득적으로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4) 朝鮮遞信協會, 『朝鮮遞信』2月號, 1937, 65-67쪽.

### III. 체신국 ‘가미시바이’의 실제

체신국에서는 조선간이생명보험의 ‘선전’을 위해 ‘가미시바이’를 이용하기로 결정하고 1936~1937년 2년간 6편을 제작하였다.(표 1 참조)<sup>35)</sup> 이 외에 1938년도에 보험사업의 보급 장려를 위해 <언덕 위의 소나무>를 제작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6편으로 제작이 그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sup>36)</sup>

식민지조선에서 처음으로 ‘가미시바이’의 출현을 보도한 것은 1934년 『부산일보』<sup>37)</sup>이다. 당시는 어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아이들의 흥미위주 내용으로 부모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논조였다. 그러나 ‘내지’ 일본에서의 큰 인기로 인해 체신국에서 적극 도입하여 ‘가미시바이’를 제작하였고,<sup>38)</sup> 간이생명보험 ‘가미시바이’의 영향을 받아 경상북도의 경우 농촌진흥운동에도 이용되었다.<sup>39)</sup> 또 조선민중의 관심을 얻었기 때문인지 1937년 조선총독부에서 ‘가미시바이’ 제작을 위한 추가예산을 편성 받아 그해 11월부터는 시국인식 선전을 위한 ‘가미시바이’가 대대적으로 제작되었다.<sup>40)</sup> 일련중(日蓮宗), 폐병 박멸,<sup>41)</sup> 방공방첩,<sup>42)</sup> 철도사고방지,<sup>43)</sup> 남세,<sup>44)</sup> 밀항방지<sup>45)</sup> 등 다양한 주제의 ‘가미시바이’가 존재했는데, 체신국의

---

35) 朝鮮遞信協會, 『朝鮮遞信』10月號, 1937, 192쪽.

36) 「언덕위에 소나무 簡保종이광대巡廻」, 『毎日新報』, 1938.06.14.

37) 「紙芝居よりも親の注意が必要」, 『釜山日報』, 1934.10.21.

38) 朝鮮遞信協會, 『朝鮮遞信』11月號, 1936, 99쪽.

39) 須磨守人, 「朝鮮官僚論」, 『朝鮮行政』1卷5号(帝國地方行政學, 1937), 169쪽; 권희주, 「식민지기 경상북도 지역의 종이연극(紙芝居)연구」, 『일본학』 46집(동국대 일본학연구소, 2018.05); 김영미, 「농촌진흥운동과 조선총독부의 오락장려책」, 『일본역사연구』 42집(일본사학회, 2015.12.)

40) 「時局宣傳에 幻燈도 出動」(1937.08.30.) 『동아일보』

41) 「仁川署衛生隊에서 肺病撲滅을高調」, 『동아일보』, 1938.10.24.

42) 防共防諜座談會豫期の好成績, 北署高等係で開催, 紙芝居も好評, 『朝鮮時報』, 1939.12.02.

43) 「鐵道事故 防止 종이광대로 宣傳」, 『毎日新報』, 1939.10.28.

‘가미시바이’ 도입은 시기적으로 대단히 이른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일제가 ‘가미시바이’ 제작에 열을 올린 것은 자전거에 실어 비교적 손쉽게 이동하여 공연이 가능하다는 편이성, 그리고 시각적인 이미지를 제시하여 “귀에서 눈으로”<sup>46)</sup> 용이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정보전달성, 또 즐길 거리가 부족한 농촌에서 스토리가 있는 드라마로 재미를 줄 수 있는 유희적 기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체신국에서 제작된 작품은 아래와 같다.

〈표 2〉 체신국 간행 조선간이생명보험 ‘가미시바이’ 일람표

작품	총 매수(표지포함)	제작연도
<두 마을(二つの村)>	13매	1936년 8월
<명암(明暗)>	14매	1936년 8월
<부흥의 문은 열린다(復興の扉は開く)>	14매	1937년 5월
<갱생(更生)>	14매	1937년 5월
<흥보전(興甫傳)>	14매	1937년 5월
<반도청년의 충성(半島青年の忠誠)>	14매	1937년 9월
<호국의 두 기둥(護國の二柱)> <sup>47)</sup>	미상	1937년 9월

이번 경성체신부장국에서 사업선전용으로서 가미시바이(두 마을, 명청(明晴)<sup>48)</sup>를 송부 받았으므로 13일부터 17일간 이를 이용하여 읍내(수원-논자주)는 물론 농촌방면에까지 진출하여 대대적으로 선전에 이용하고 있다. 보험선전에 가미시바이를 이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sup>49)</sup>

44) 「蔚山조희연극盛況」, 『동아일보』, 1939.5.21.

45) 慶尙南道, 『朝鮮人勞働者の内地密航取締狀況』, 川井印刷所, 1940

46) 「農村に“紙芝居”登場「耳から」が「目から」に方向轉換 上瀧知事の方針實現」『釜山日報』, 1936.12.10.

47) ‘제작 중’으로 표기되어 있어 완성을 이루었는지는 알 수 없다.

48) 명암의 오기로 보임

위 인용문은 수원우편국의 상황으로 1936년 처음으로 ‘가미시바이’를 선전에 이용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명암>, <두 마을> 2개의 작품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읍내뿐만 아니라 ‘가미시바이’의 이동성을 발휘하여 농촌까지 찾아가 선전에 이용하였고, 이 두 작품은 천안<sup>50)</sup>, 청주<sup>51)</sup>에서도 시연되었으며 ‘가미시바이’는 조선 내에서 큰 호평을 얻었다.<sup>52)</sup>

신규계약모집에 대단한 성적을 올려 이미 할당액을 완성한 (중략) 경성체신분장국에서는 구내 제일선국소의 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방 대중을 위안하고 간보사상 보급선전에 힘쓰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활동사진 및 가미시바이반을 출동시킨다.<sup>53)</sup>

체신국 ‘가미시바이’는 특히 경성체신분장국에서 제작, 배포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경성체신분장국은 ‘지방’으로 그 활동을 확장하여 충북과 전주 일대로 진출하였다.<sup>54)</sup> “대중을 위안”한다는 것으로 볼 때 ‘가미시바이’의 오락성을 인지하고 이를 중심으로 ‘선전’에 힘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여러 지역에서 시연된 <명암>과 <두 마을>은 1936년 8월 13일에 발표된 작품으로,<sup>55)</sup> 불행히도 그림은 남아있지 않지만 대사는 확인할 수 있다.<sup>56)</sup>

---

49) 「水原郵便局簡保宣傳紙芝居」, 『朝鮮新聞』, 1936.11.16.

50) 「天安局紙芝居利用簡保宣傳」, 『朝鮮新聞』, 1936.12.02.

51) 「紙芝居で宣傳, 簡保模範靑州局で」, 『朝鮮新聞』, 1937.01.27.

52) 朝鮮遞信協會, 『朝鮮遞信』11月號, 1936, 100쪽.

53) 「京城分掌局紙芝居班出動, 簡保を宣傳」, 『朝鮮新聞』, 1937.04.09.

54) 같은 기사

55) 朝鮮遞信協會, 『朝鮮遞信』10月號, 1937, 192쪽.

56) 朝鮮遞信協會, 『朝鮮遞信』11月號, 1936, 101-104쪽.

## 1. 보험가입자와 비가입자의 대비

<명암>은 사방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조선인 두 청년 안(安)군과 심(沈)군의 이야기이다. 안군은 조선간이생명보험의 안내지를 받고 보험에 가입하지만 심군은 전혀 관심이 없고 술만 마시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는 보험의 구조를 문답식으로 풀이해준다. 안군이 “매월 1엔씩 내면 20년째 정도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보험모집인은 “당신이 서른 살이면 1원씩 내어 232원의 보험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1원씩 내어 20년치인 240엔이 되지 않는 이유, 중도해지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 혹은 사망시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1엔을 내어 232엔의 큰돈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여 평소의 적은 돈 불입과 목돈으로 돌아오는 결과의 대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안 군의 아내는 딸이 시집을 갈 때쯤이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가입으로 딸의 미래를 보장받았음을 드러낸다. 이는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해야하는 가입자의 불안을 자녀의 보장된 미래로 치환하여 소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심 군의 아내는 “저나 아이를 생각해 달라”며 남편에게 불만을 표한다. 가입자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의 특성상, 가입자의 사망후 가족의 안위를 지키는 책임있는 가장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어느 날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심 군이 얼음 위로 건너가려는 위험한 선택을 하자 안 군이 이를 말리려다 둘 다 물에 빠져 죽고 만다. 안 군의 가족은 보험금을 받아 작은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심 군의 가족은 먼 곳으로 떠나게 된다. 심 군의 아내는 “아이를 고생시키는 것도 모두 우리들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후회한다. 즉, 이 모든 불행은 보험 미가입의 책임으로 수렴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안 군의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의 눈물을 흘린다.

이 작품은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은 여인들의 극적인 상황 대비를 통해 보험가입 여부에 따라 가족의 안위와 미래가 달라진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남편 사망 뒤 지급된 보험금이 실제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인 정보는 제시되지 않지만 보험금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한 듯이 그려내고 있다. 즉, 생명보험이 본질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나’의 사후 가족의 생활을 위한 안전장치<sup>57)</sup>라는 특성을 이용해 가족주의에 호소하는 전략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명암>은 설령 보험의 구체적인 타당성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보험가입이 한 개인의 사고나 생명 위험을 넘어서 남겨진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보험의 당위성을 전달한다고 파악할 수 있다.

〈표 3〉 〈명암〉의 장면별 주요사건

장면1	우편소 직원의 조선간이보험 안내지 배부
장면2	열심히 안내서를 읽는 안(安)군과 술을 마시러 가는 심(沈)군
장면3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심군
장면4	보험금 적립에 대한 설명
장면5	아내에게 보험가입을 알리는 안군
장면6	집에서 술주정을 하는 심군
장면7	시장에 함께 나간 안군과 심군
장면8	얼음 위로 건너가려는 심군과 다리를 건너려는 안군
장면9	물에 빠진 심군과 그를 구하려는 안군
장면10	둘의 사망
장면11	보험금을 받은 안군 가족과 받지 못한 심군 가족
장면12	아이를 고생시키며 마을을 떠나는 심군 가족
장면13	죽은 남편에게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안군 가족

한편, <두 마을>은 <명암>보다 한 장면이 적은 모두 12장면으로 구성

57) 왕혜숙, 백용훈, 「한국의 생명보험시장 발달에 대한 이론적 고찰: 가족과 여성의 관점에서」, 『사회사상과 문화』19(동양사회사상학회, 2016), 228쪽.

되어 있는 작품이다. 매년 산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동쪽 마을과 서쪽 마을에는 100가구씩 살고 있는데, 제사 전날 밤 화살이 날아와 꽃히는 집은 제물로 쌀 100섬을 내놓는 풍습이 있다. 자신의 집에 화살이 날아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매년 제사 전날 문을 잠그고 공포에 떠다. 그런데 동쪽 마을의 어떤 현명한 사람이 쌀을 한집에 1섬씩 모아 제사를 지내자고 제안한다. 그러나 서쪽마을은 그와 같은 생각을 하지 못해 평생 가난하게 사는 집이 매년 끊임없이 생겨났다.

이러한 일화를 소개하고 공연자는 관람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어느 쪽 마을을 선택하겠나?”고 묻는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동쪽 마을의 삶을 사는 것으로 “평소 튼튼히 일하는 동안 조금씩 돈을 내어두고 노년이 되었을 때 혹은 만일의 사건이 생겼을 때 보험금을 수령”한다고 공연자가 보험의 구조를 설명한다. 야마모토 체신국장이 보험사업에 대해 “보험 본래의 목적인 상호부조에 의하여 손해를 보진”<sup>58)</sup>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통적인 상호부조는 촌락사회의 구조적인 특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두 공동체의 극적인 대비를 통해 촌락사회의 안위를 제시하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두 마을>은 <명암>의 보험가입의 중요성을 가족 단위에서 마을이라는 공동체로 나아가 이분법적 대비로 확장시킴으로써, 한 마을 혹은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공동체의 존속이 위협받는다는 경고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표 4〉 〈두 마을〉의 장면별 주요사건

장면1	평화로운 동쪽 마을과 서쪽 마을에 감춰진 희생
장면2	매년 산의 수호신에 제사를 지내기 전날 한 집에 날아드는 화살
장면3	화살이 날아드는 집은 제사지낼 쌀 100섬을 마련
장면4	산의 수호신에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입는 화

58) 「朝鮮簡保健康 相談所의設置 傘本遞信局長談」, 『每日申報』, 1932.08.16.

장면5	화살을 맞지 않기 위해 문을 걸어잠그는 사람들
장면6	화살을 맞는 집은 파산하게 되는 상황
장면7	모든 집에서 한 섬씩 쌀을 마련하자는 동쪽 마을사람의 제안
장면8	한 섬씩 쌀을 마련한 동쪽 마을은 모두 안심
장면9	서쪽 마을은 동쪽마을과 같은 생각을 못함
장면10	당신은 어떤 마을을 선택하겠는가
장면11	보험은 동쪽 마을의 사람이 되는 것
장면12	간이생명보험이 있다면 생활의 염려가 없어 안심

따라서 <명암>과 <두 마을> 두 작품 모두 픽션을 소재로 하였지만, 그 속에서 재현되는 가족이나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현실적 모티브는 ‘가미사바이’의 관람자 또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불행에 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동원한다는 효과를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관람자인 다수의 조선 민중에게 공포와 위기의 극대화는 물론, 보험가입자와 비가입자를 우열로 양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결국 ‘가미사바이’를 통한 조선간이생명보험 선전은 보험에 가입한 자들만이 이러한 생의 위기와 불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특권을 제시하며 보험가입자와 비가입자와의 극적인 대비를 통해 이해시키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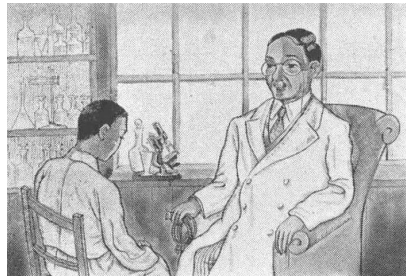
## 2. 건강상담소의 혜택과 조선청년의 성장서사

<부흥의 문은 열린다>는 1937년 5월에 제작된 작품으로 모두 13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작품의 내용을 대강 살펴보면, 주인공 박영식 군은 공업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 그의 아버지는 농사에 일가견이 있는 인물이다. 특히 우수한 종자를 골라내 개량도 가능한 그 지역의 지도자이기도 하다. 그러던 그가 사람들의 꼬임에 빠져 광산투자에 손을 대면서 그의 삶은 ‘불안’이 감돌게 되었다. 어느 날 아버지는 광산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중 골짜기에 미끄러져 사망한다. 그러면서 공연자는 “일확천금을 꿈꿔 익숙하지 않은 일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며 조선민중에게 농업에 계속해서

종사할 것을 강조한다. 사실 1937년은 '농가갱생'에서 '생업보국'운동으로 농촌진흥운동이 한창 강화되던 시기로, 생산량 제고는 조선총독부의 당면 과제이기도 했다.<sup>59)</sup> 조선 민중의 농촌 이탈을 방지하고 농업에 대한 집중을 높이는 정책이 체신국의 '가미시바이'에 드러나고 있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홀지에 집안의 가장이 된 박영식은 학교도 그만두고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 그리고 어느 날 '만일을 대비해야한다'는 강박사의 강연을 듣고 큰 감동을 받는다. 박영식 군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심하게 앓게 되자, 그의 어머니는 "간이보험 건강상담소에 가서 진찰을 받거라. 상담소에서 좋은 선생님이 무료로 진찰을 해주시니"라고 조언을 한다. 건강상담소에서 박영식을 진료한 김박사는 그에게 폐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향후 치료를 위해 건강상담소에 오기 힘들면 순회건강상담으로 진료를 나오니 걱정말라고 당부한다.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농촌에서 건강상담소를 통해 무료 진료,

방문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복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진료장면인 <그림 6>을 살펴보면 박영식은 고개를 숙인채 힘이 없어 보이고 김박사는 상대적으로 위엄있고 크게 그려져있다. 이것은 결국 김박사의 의학적 전문성이나 신체적 우수성을 의도적으로 알리는 장면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림 6> 건강상담소의 박영식과 김박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조선민중이 보험가입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은 건강상담소 정도로 파악된다. 조선총독부에서는 1932

59) 김영희, 「농촌진흥운동을 통한 일제의 농촌통제와 농민의 반응」, 『한국민족운동사연구』30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2)

년 조선총독부령 제74호 ‘조선간이보험건강상담소규정’을 공포하고 경성 및 부산 두 곳에 건강상담소를 설치하였다.<sup>60)</sup> 후에 평양, 대구, 원산, 인천, 목포, 청진에 설치하고 전속의사가 무료로 피보험자의 상담에 응하며, 지방의 피보험자들을 위해 순회건강상담을, 경성건강상담소에는 우편에 의한 건강 상담을 취급하였다.<sup>61)</sup> 1938년의 보고에는 군산과 신의주가 추가된 사실을 알 수 있다.<sup>62)</sup> 그러나 건강상담소는 이상과 같이 대도시에만 존재하여 조선민중이 직접 찾아가 진료를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박영식은 일을 쉬고 라디오체조를 하며 점차 건강을 되찾자 모든 것이 조선간이생명보험과 친절한 김박사의 덕분이라며 기뻐한다. 이러한 경험을 조선인 박영식의 목소리로 “간이보험은 만일의 경우에도 도움이 되며 평소에도 우리들 생활의 안정과 건강의 보호증진을 도모”한다고 평가한



〈그림 7〉 라디오체조를 하고 있는 남매

다. 덕분에 박영식은 혼담이 오고가 결혼도 하게 되고 희망에 불타는 인생의 첫걸음 ‘우리 집의 부흥’을 목표로 전진한다.

이처럼 본 작품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아버지를 대신해 가장이 되어 공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박영식의 건강악화를 그리면서, 조선간이생명보험이 이러

한 험난한 현실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보험의 도움을 받아 건강한 청년으로 다시 일어선다는 조선 청년의 성장 서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박

60) 「朝鮮簡保健康 相談所의設置 傘本遞信局長談」, 『每日申報』, 1932.08.16.

61) 朝鮮總督府, 『朝鮮の經濟事情』, 1936, 73쪽

62) 朝鮮總督府, 『朝鮮の經濟事情』, 1938, 74쪽

영식의 건강회복은 <그림 7>에서 나타난 가족들의 화목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자립하고 가정을 책임져야하는 위협에 직면한 청년이 건강상담소의 도움으로 일도 하면서 결혼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부흥의 문은 열린다>에서 ‘만일을 대비’하는 건강이야말로 조선간이 생명보험으로 가능 및 완성된다는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다.

<표 5> <부흥의 문은 열린다>의 장면별 주요사건

장면1	장남 박영식의 소개
장면2	농업에 열심인 아버지 박 씨
장면3	농사면에서 지도자이자 서구자인 박 씨
장면4	꼬임에 빠져 광산 사업에 손을 댄 박 씨
장면5	사고로 사망한 박 씨
장면6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박영식
장면7	공장에서 강연을 들은 박영식
장면8	간이보험 건강상담소를 찾은 박영식
장면9	건강상담소와 순회건강상담 설명
장면10	휴식과 라디오 체조로 건강을 되찾은 박영식
장면11	간이보험의 우수함에 감격하는 박영식
장면12	어머니의 증대
장면13	부흥의 첫발을 내딛은 박영식

#### IV. 결론

이상과 같이 이 글에서는 조선총독부 체신국의 조선간이생명보험의 ‘선전’과 체신국 제작 ‘가미시바이’ 작품을 고찰하였다.

조선총독부 체신국에서는 당시 조선인들에게 조선간이생명보험을 권장하기 위해서, 포스터나 강연회, 영화, ‘가미시바이’ 등을 선전수단으로 이용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힘없고 나약한 존재를 보호해야할 대상으로 표현하거나, 혹은 영화 배경과 등장인물을 실제 조선과 조선인을 내세움

으로서 리얼리티를 확보하여 보다 설득적으로 보험가입을 호소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가미시바이’에 있어서도 <명암>과 <두 마을>의 경우 가족과 공동체라고 하는, 관람자에게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소재를 재현시킴으로써 공포와 위기가 곧 관람자 자신의 현시적 문제로 인식시키고 있다. 이와 동시에 보험가입자와 비가입자간의 대비는 삶의 위기라는 불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강조해 결국 우열로 이분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선전’ 수단과 ‘가미시바이’의 고찰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제는 보험의 기원을 한국 고유의 ‘계’에서 찾아 보험의 개념이 낫설 수 있는 조선인에게 ‘보험’이 대단히 조선적이며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이것이 문명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임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전국민이 가입하는 보험이 아닌 대부분 적은 액수로 서민들이 가입하는 보험이기에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얻기는 어려워 저소득층에게 큰 혜택이 돌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한 집안의 가장이 사망하더라도 본인의 사후 남겨진 가족을 위해 보험은 어른들이 반드시 가입해야할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가족주의적인 측면에 호소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보험의 성격을 ‘상호부조’에서 찾으려 하며 보험의 가입이 본인을 위한 것만이 아닌 조선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미래의 위험을 대비할 수 있다는 공동체 의식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보험이 단순한 미래의 안위를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의 건강관리를 가능하게 하며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식민지기 체신국의 ‘가미시바이’는 당시 조선민중의 조선간 이생명보험 가입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제작되었다. ‘가미시바이’는 문화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열악한 환경의 농촌에까지 직접 찾아가 스토리를 갖는 드라마로 정보를 전달하며 유희적인 기능을 동반하였다. 또, 현실의 불안이라는 감정적인 기제를 동원하여 보험 가입은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 받는 특권이라는 메시지로 또 다른 우열을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조선총독부 체신국, 조선간이생명보험, 선전영화, 가미시바이, 건강상담소

(논문투고: 2020.10.30 / 논문심사완료: 2020.11.04 / 논문게재 확정일: 2020.11.05)

## 참고문헌

### <사료>

- 朝鮮遞信協會, 『朝鮮遞信』11月號, 1936.  
朝鮮遞信協會, 『朝鮮遞信』2月號, 1937.  
朝鮮遞信協會, 『朝鮮遞信』10月號, 1937.  
須磨守人, 「朝鮮官僚論」, 『朝鮮行政』1卷5号(帝國地方行政學, 1937)  
『조선일보』, 『동아일보』, 『每日申報』, 『朝鮮新聞』, 『釜山日報』, 『中外日報』,  
『朝鮮時報』.

### <단행본>

- 加太こうじ, 『紙芝居昭和史』, 東京: 岩波現代文庫, 2004.  
朝鮮總督府, 『朝鮮の經濟事情』, 1936.  
朝鮮總督府, 『朝鮮の經濟事情』, 1938.  
朝鮮總督府遞信局, 『朝鮮遞信事業沿革史』, 1938.

### <논문>

- 권희주, 「식민지조선의 ‘종이연극’-시각미디어를 이용한 정보선전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105(한국일본학회, 2015.11.).  
권희주, 「식민지기 경상북도 지역의 종이연극(紙芝居)연구」, 『일본학』 46집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2018.05.).  
김영미, 「농촌진흥운동과 조선총독부의 오락장려책」, 『일본역사연구』 42집 (일본사학회, 2015.12.).  
김영희, 「농촌진흥운동을 통한 일제의 농촌통제와 농민의 반응」, 『한국민족운동사연구』30(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2).

- 양홍준, 「日帝下 朝鮮簡易生命保險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왕혜숙·백용훈, 「한국의 생명보험시장 발달에 대한 이론적 고찰: 가족과 여성의 관점에서」, 『사회사상과 문화』19(동양사회사상학회, 2016).
- 정일영, 「일제 식민지기 조선간이생명보험을 통해 본 '공공'의 기만성」, 『역사학연구』 75(호남사학회, 2019).
- 황의룡·손환, 「일제 강점기의 라디오체조 보급과 사회적 영향」, 『체육사학회지』14(3), (한국체육사학회, 2009).
- 權學俊, 「近代日本における身体の國民化と規律化」, 『立命館産業社會論集』53(4)(立命館大學産業社會學會, 2018).
- 福井讓, 「朝鮮總督府の遞信政策—朝鮮簡易生命保險制度の導入と遞信局」, 『日本の朝鮮·台湾支配と植民地官僚』國際シンポジウム報告書 第30集(人間文化研究機構國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2008).

## REFERENCE

### <Historical Materials>

- Joseonchesinhyeophoe, 『Joseonchesin』11wolho, 1936.  
Joseonchesinhyeophoe, 『Joseonchesin』2wolho, 1937.  
Joseonchesinhyeophoe, 『Joseonchesin』10wolho, 1937.  
Suma Morito 「Chosenkanryoron」, 『Chosengyousei』 Vol.1 No.5, Teikoku  
Tsiho Gyoseigaku, 1937  
『Joseonilbo』, 『Dongailbo』, 『Maelsinbo』, 『Joseonsinmun』, 『Busanilbo』,  
『Jungoeilbo』, 『Joseonsibo』.

### <Monographs>

- Gato Kouji, 『Kamishibai Shyowashi』, Tokyo; Iwanamigendaibunko, 2004.  
Joseonchongdokbu, 『Tsosenno Keijaijijo』, 1936.  
Joseonchongdokbu, 『Tsosenno Keijaijijo』, 1938.  
Joseonchesinhyeophoe, 『Joseonchesinsaepyeyonhyeoksa』, 1938.

### <Articles>

- Kwon, Heeju, 「Kamishibai of Colonial Joseon: Focused on Information  
Advertisement Using Visual Media」, 『The Korean Journal of  
Japanology』 Vol. 105(Korea Association Of Japanology, 2015, pp.  
271-284.  
Kwon, Heeju, 「A Study on Kamishibai in the Colonial period  
Gyengsangbuk-do area」, 『The Ilbon-Hak』 Vol.46, (The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Academy of Cultural Studies 2018, pp. 115-132.

- Kim, Yeongmi, 「A Study o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rural development campaign and the encouragement of entertainment of Chosun Colonized」, 『Journal of Japanese History』, Vol. 42, The Korean Association For Japanese History, 2015, pp. 155-184.
- Kim, Yeonghee, 「The Agrarian Promotion Movement, and the Peasants' Responses to the Movement's Control of the Agrarian Society」, 『Journal of Studies on Korean National Movement』, Vol.30, The Association for Historical Studies on Korean National Movement, 2002, pp.297-342.
- Yang, Hongjun, 「Iljeha Josenganisaengmyeongbohyeom Yeongu」, Korea University Master's Thesis, 1994.
- Wang, Hyesuk, Beak, Yonghun, 「Protecting Individuals vs. Families: Revived Familialism in Life Insurance Market in S. Korea」, 『Journal of East Asian social thoughts』, Vo. 19, The Association Of East Asian Social Thoughts, 2016, pp. 227-266
- Jeong, Ilyeong, 「The Deception of “Publicness” through the Simplified Life Insurance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Chonnam Historical Review』, Vol.75, Honam Historical Association, 2019, pp. 179-214
- Hwang, Euiryong · Son, Hwan, 「The Social Influence and Propagate of radio free gymnastic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Korean Journal for History of Physical Education, Sport and Dance』, Vol. 14 No.3, Korean Society for History of Physical Education, 2009, pp. 37-48
- Kwon, Junhak, 「Nationalization and Disciplining of the Body in Modern Japan」, 『Ritsumeikan review of industrial society』, Vol. 53 No.

4, Ritsumeikan University Social Science, 2018, pp. 31-49  
Fukui Yuzuru, 「Chosen sotokufu no tsushin seisaku: Chōsen kani seimei hoken seido no dounyū to teishin kyoku」, 『Study of Bureaucracy of the Japanese Colonial Empire』, Vol. 30, International Research Center for Japanese Studies, 2008, pp.237-252

## A study on “Kamishibai” of simplified life insurance in colonial Joseon

Kwon, Hee-Ju & Sung, Yun-A

In this article, I studied “Propaganda” of Simplified Life Insurance, Ministry of Communications of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d “Kamishibai” produced by Ministry of Communications of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First, the Japan looked for the origin of insurance in Korea’s unique “gye,” emphasizing the fact that “insurance” is very Korean and universal to Koreans who may be unfamiliar with the concept of insurance, and expressed that this is the way to go on the path of civilization. but, it is difficult to obtain the effect of redistribution of income, and it is difficult to say that a large benefit has been returned to the low-income group, because it is not insurance that the whole country subscribes to, but by the general public for a small amount.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even if the head of a family dies, it is appealing to the familial aspect that insurance is an essential matter that adults must subscribe to for the family left behind.

Third, it can be seen that it is appealing to a sense of community that the nature of insurance is found in ‘mutual aid’, and that insurance subscription is not only for you, but is helpful to all Koreans and can prepare for future risks together.

Fourth, it conveys the message that insurance not only guarantees

future security, but also enables normal health care and can help pioneer one's own life.

The “Kamishibai” of the post-colonial Ministry of Communications of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was produc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Korean people at that time to subscribe to the Simplified Life Insurance. “Kamishibai” went directly to farm villages in a poor environment where it was difficult to receive cultural benefits, and delivered information through a drama with a story, accompanied by a amusement function.

**Key Words** : Ministry of Communications of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Simplified life insurance, Propaganda film, kamishibai, Health Consultation Center